공직기강 해이 '해도 너무한다'

수사정보 유출·손님 폭행·보조금 횡령 공무원 잇단 입건

정부가 최근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강해이는 점입가경이다.

광주 한 구청의 공무원은 공무상 알게 된 경찰의 수사정보를 유출했는가 하면, 광양시청 한 공무원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손님을 폭행해 입건됐다.

광주남부경찰은 22일 경찰의 수사상황을 수사대상에게 알려준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 이모(44·7급)씨를 공무상 비밀의 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일 '정기검사 미실시로 차량 등록·이전을 못하는 차주들에게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구청으로 보내오자 나흘 뒤 수사대상인 장모(54)씨를 구청으로 불러 공문 사본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김모(56)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씨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준 뒤 경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경찰도 이날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린 광양시 도시보건지소 공무원 김모(54·6급)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새벽 2시께 광양시 중마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중 자신의 옆자리에 있던 30대 손님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당직 근무중이던 7급 공무원이 동료 직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 끝에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또 전날 순천에서는 국가 보조금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5급·6급·8급 공무원 등 3명이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거나 입건되기도 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소방관들 공기호흡기 장착 훈련 22일 광주 북부소방서에서 열린 '강한 소방관 만들기' 훈련에 참가한 대원들이 공기호흡기 장착 훈련을 선보이고 있다. 북구 6개 센터 150명의 대원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는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기호흡기 장착 이외에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등 개인별 7개 종목 및 사다리 설치 등의 팀별 평가가 실시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드링크에 농약 타 남편 살해 40대 구속

보험금 1천만원 받아… 3자 공모 여부 수사

광양경찰은 22일 남편에게 농약을 탄 드링크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강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0일 밤 9시 20분께 자택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남편 윤모(48)씨에게 농약을 탄 드링크제를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애초 남편이 질식사했다는 강씨의 신고를 받고 윤씨 사체에 대한 부검을 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윤씨가 마셨던 드링크제 내용물에 대한 분석을 한 국과수로부터 고독성 농약성분인 '메소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강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부인 강씨가 평소 주벽이 심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이웃의 말에 따라 일단 가정폭력이 부른 범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건 후 강씨가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금 1000만원을 받은 점 등을 중시, 제 3자 등과 공모한 보험과 관련한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걸그룹 '아이리스' 이은미, 남친 흉기에 찔려 숨져

3인조 트로트 걸그룹 '아이리스'의 보컬로 활동했던 이은미(24)씨가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은 다른 남자를 사귀려 한다는 이유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모(28·중고차매매 종업원)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15분께 시흥시 정왕동 이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이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6~7개월 전부터 이씨와 교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조씨가 범행 당일 오후 10~11시 이씨가 일하는 가게 주변 상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은미는 2005년 3인조 걸그룹 아이리스의 첫 싱글 '메시지 오브 러브'로 데뷔했다. /연합뉴스

시비 끝 20대 행인 폭행

10대 폭력배 5명 붙잡아

사소한 시비 끝에 20대 행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10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2일 새벽시간대 도심 유흥가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싸움을 벌이던 20대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백모(19)군 등 10대 조직폭력배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조직폭력단원인 백군 등은 지난 18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술집 앞에서 양모(27)씨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맥주병 등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양씨의 여성 일행이 술집 근처 편의점에서 어깨를 부딪혀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에서 달려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식품관리 엉망

활어·냉면업소 점검 16곳 적발

수족관 등 대장균 득실

광주시는 22일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활어 취급업소 67곳과 냉면 전문음식점 38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4개 업소는 수족관수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3개소는 식품보관기준 위반, 1개소는 남은 음식 재사용, 8개소는 영업장 청소상태 불량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소는 영업정지, 7개 업소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음식 보관이나 수족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름 불청객 비브리오 주의!

광주 꽃게·전남 갯벌서 균 검출

어패류 익혀 먹어야

광주에서 유통중인 어패류와 전남 서남해안 갯벌에서 잇따라 비브리오 패혈증균과 유발균인 비브리오벌니피커스균이 검출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광주지역에서 유통 중인 어패류를 검사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꽃게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시장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주로 간질환 환자나 당뇨병 등 저항력이 약한 만성 질환자들이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으면 감염되며, 지난해 전국에서는 73명의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31명이 사망하는 등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서남해안 해수와 갯벌을 각각 120건 채취해 조사한 결과 이 중 2건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유발균인 비브리오벌니피커스균이 나왔다.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 각각 1건씩 검출된 비브리오벌니피커스균은 상처 감염증이나 패혈증을 유발하는 균으로 오한과 발열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과 설사, 복통, 하지 통증 등을 일으킨다.

특히 장마철에 빗물이 해수에 유입돼 바닷물 농도가 1% 정도로 낮아질 때와 바닷물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비브리오벌니피커스균의 증식과 활동이 활발해진다.

광주·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처럼 비브리오패혈증 원인균이 도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간질환이나 만성질환자 등 감염 위험군을 대상으로 여름철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말 것을 홍보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이 면담자에 권총 겨눠

진도 파출소서… 인권위, 경고 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면담자에게 총을 겨누는 시늉을 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도록 진도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도군 고군면에 사는 A(46)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경찰관이 권총을 꺼내 위협해 놀라 실신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신의 계시가 있어 B씨의 집을 계속 찾아갈 것'이라고 해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다가 권총을 꺼내 옆쪽을 겨누는 시늉을 하면서 '신의 계시라며 누가 총을 들고 당신을 쫓아다니면 좋겠느냐'고 한 적은 있지만 직접 위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해도 경찰관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겨눈 행위는 당사자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연합뉴스

나운참 〈8342〉 김종두

차량 손목치기 부부 덜미

딸까지 동원 합의금 챙겨

군산경찰은 22일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 등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채모(2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부부는 2008년 9월2일 오후 11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에서 서행하던 승용차의 후사경에 손목을 접촉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와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친딸(5)까지 다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법무사 사무실만 골라 절도 행각

쌍나팔

○…순천경찰은 22일 전국을 무대로 법무사 사무실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여온 홍모(68)씨와 장모(41)씨를 절도혐의로 구속.

○…홍씨 등은 지난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호적상담소에서 A씨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 400여 만원어치의 홍삼 제품을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청주와 부산, 대구, 전주 등 전국 법무사 사무실을 돌며 7회에 걸쳐 모두 25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경찰조사 결과 홍씨 등은 교도소 동기로 법무사들이 대개 고령인 점을 노려 법률 상담을 받는 척 접근해 주의를 분산한 뒤, 의자나 옷걸이에 걸려있는 양복에서 지갑을 슬쩍.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호남유일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합격도 전략이 필요하다!
공무원 합격설명회
당일접수자 수강료 20% 교재 30%할인
'11년 6월 22일(수) 14:30
최근 5년간 기출문제 + 고급노트증정
종합반 교재5권 20만원 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